

비상경제장관회의

23-20-1

(공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2023. 9. 4.

관계부처 합동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요약)

1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수출) '23.1~8월 수출액은 $\Delta 12.4\%$ 감소(4,093억불) 하였으나, '23.1분기 저점 이후 전분기 대비 개선 흐름

- (품목) 자동차, 이차전지(양극재 포함), 기계, 선박 수출 증가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부품, 석유제품·油化 큰 폭 감소
- (지역) 對中·對아세안 $\Delta 20\%$ 수준 감소, 對美 보합, 對EU 증가
 - 美-中間 수출비중 격차('23.1~8월 : 1.8%p)는 '03년(0.4%p) 이후 최소
 - * 최근 對中 수출·수지(억불, '23.3~8월) : (수출) 105 → 95 → 106 → 105 → 99 → 105
(수지) $\Delta 27 \rightarrow \Delta 23 \rightarrow \Delta 18 \rightarrow \Delta 13 \rightarrow \Delta 13 \rightarrow \Delta 12$

□ (수입) 에너지($\Delta 22\%$)·非에너지($\Delta 9\%$) 모두 감소한 4,333억불($\Delta 12\%$)

-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원유·가스·석탄 수입 모두 감소
 - * 에너지원별 수입액·증감률('23.1~8월, 억불) : 원유 549($\Delta 24\%$), 가스 290($\Delta 12\%$), 석탄 145($\Delta 27\%$)
- (非에너지) 반도체·철강 등 중간·자본재 감소, 소비재 보합
 - * 가공단계별 수입증감분('23.1~8월, 억불) : (중간재) $\Delta 254$, (자본재) $\Delta 46$, (소비재) $\Delta 22$

□ (수지) 무역수지는 '23.1월 이후 개선 추세, 6~8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억불, '23.1~8월) : $\Delta 126 \rightarrow \Delta 53 \rightarrow \Delta 47 \rightarrow \Delta 28 \rightarrow \Delta 22 \rightarrow +11 \rightarrow +17 \rightarrow +9$

□ (전망) 6월부터 이어지는 흑자기조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수출) 자동차·이차전지(양극재 포함)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 선박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
- (수입) 에너지 수입은 유가 소폭 상승, 동절기 수요 증가 영향으로 연말로 갈수록 증가, 전체 수입은 상반기 수준 감소

* 유가 전망(Brent, \$/b, EIA) : ('23.2분기) 78.0 → (3분기) 83.8 → (4분기) 87.7

2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 ◇ 품목·지역 다변화 등 수출구조 개선 방안 추진 + 무역금융·수출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 ◇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

1 수출품목 다변화

①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 투자지원·인력양성·통상협력 등을 통해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R&D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신설(기업당 한도 50억원),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 **(반도체)** 반도체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반도체생태계 펀드’ 조성(3,000억원, ’23.7~),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 **(이차전지)** 포항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규 지정(3개교), 차세대 전지 R&D 신속 예타 추진(약 2,000억원)
- **(바이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R&D 국제협력 확대, K-바이오데스크 설치(’24년 7개소)로 기업애로(인·허가, 통관 등) 해소 지원

* 韓 의료데이터와 美 첨단바이오 기술 융합·활용, 의사과학자 양성 등

-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시험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의 신기술 검증 지원, 대형디스플레이 장비 운송 신속허가 지원**

*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천안, ’24.上 준공, 총 1,595억원)

** (現) 이동경로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별도 협의 → (改) 협의체 신설해 일괄 협의

- **(철강)** 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일본 등과 통상협력 강화, 친환경 원료 확보를 위한 ‘철자원 산업육성전략’ 마련(’23.4분기)

* AI 기반 스크랩 검수 기술 도입·확산, 등급분류 표준 개선, 통계기반 구축 등

- **(조선)** 인력충원을 위한 E-9 조선업 쿼터(現 5,000명) 확대 검토, 무보 RG 특례보증 2천억원 신규 공급,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주체 확대*
* (現) 발주사, 선주 → (改) 제조사(조선사) 추가로 친환경선박 건조실적 인정 확대
- **(자동차)** 전용 수출선복 부족으로 컨테이너선 이용 시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35%) 요건 완화
* (現) 당일, 같은 장소에서 검사 → (改) 일주일 내 검사한 물량에도 할인 적용
- **(일반기계)** 사우디 등 중동에 「건설기계 수출사절단」 파견

2 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

◇ 디지털, 화장품, 콘텐츠, 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수출 확대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유도

- **(디지털)** 디지털 新제품·서비스 ICT 융합품질 인증을 확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 확대 지원
- **(화장품)** K뷰티의 높은 관심을 활용하여 수출 유망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홍보관, 해외 판매장 등 확대 운영
* K뷰티 홍보관 1개소 추가운영('23.4분기), 해외화장품판매장 2개소 신규 운영('24년)
- **(콘텐츠)**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24~'28년)해 글로벌 시장 공략 K-콘텐츠 육성
*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 등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
- **(농수산물식품)**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23년 44억원 → '24년 328억원), 딸기 등 신선품목 물류비 지원비율 상향(15% → 25%)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전력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 활용시 경영평가에 반영*
* 국산 태양광, 풍력 제품을 신제품(NEP), 신기술(NET)로 인정하여 경영평가 가점 부여
- **(녹색산업)** 현지전담팀을 인니(10월, 물분야), 콜롬비아(11월, 폐기물분야) 등에 파견하여 K-환경정책을 수출하고 신규 수출사업 발굴

2

수출 지역 다변화

① 주력시장 (미국 · 중국 · 아세안)

◇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정부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밀착 지원**을 위한 **현지지원센터 구축**

- **(정부간 협업)**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등을 개최하여 한·중 정부·기업간 경제협력 활성화
- **(해외진출 지원)** 공공기관 해외투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창업·벤처 기업의 현지·합작법인 설립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 조성('24년~)
- * 예비타당성조사 시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 하여 예타기간 단축
- **(현지거점 구축)** 현지수요 발굴·매칭 등 지원을 위한 미국 거점 반도체협력센터('24년), 미국·베트남에 해외물류센터 추가('23.12월)

② 新전략시장 (중동 · 중남미 · EU 등)

◇ 대규모 건설·플랜트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정부간 협력 + 금융지원 + 현지거점센터 확보 + 정보제공 등 패키지 지원**

- **(정부간 협업)**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화상회의, 한-사우디 경제협력단 파견(9월), 인프라위원회 설립 추진 등 우호적 진출환경 조성
- **(해외진출 지원)** 고위험·저신용국 수주 지원 위해 수은 특별계정 2,500억원(정부 1,000억원 + 수은 1,500억원) 추가 조성
 - 플랜트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 대상 무역금융 확대(무보, '23년 17.8조원 → '24년 20조원), PIS*펀드 1.1조원 추가 조성('24~'27년)
 - *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 **(현지거점 구축)** 중동 등 전략시장 중심 현지 거점무역관 확대
 - * (원전) 10→16개소, (방산) 20→31개소, (플랜트) 7→11개소 등

3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 무역금융·수출마케팅·수출바우처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통관·물류 규제개선 등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 **(무역금융)** 연말까지 최대 181.4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 *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6조원, 수출금융 17.4조원, 은행 수출 우대상품 5.4조원
- **(해외마케팅)**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확대**
 - * 전문무역상사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해외 동반 판촉전, 글로벌 전시회 단체참여 지원 등
 - ** (기업수) 5,478 → 5,646개사(+168), (지원단가) 12.6 → 15.1백만원(+19.8%)
-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 '24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확대
 - * 지원규모: ('23) 1,441억원 / 3,473개사 → ('24) 1,679억원(+238) / 3,984개사(+511)
 - ** 지원항목 추가 : 수출국 현지 사후관리 대응 서비스, 유해물질 검사
- **(해외인증)** 의약품 수출시 국내 허가자료를 활용해 수출국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싱가포르 등)
- **(통관·물류)** 인천 신항(11월), 부산항(12월) 등 항만인프라 적기 확충,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설립 허가기준 완화('23.10월)
- **(인력 확보)** 연내 외국인 고용허가서(E-9) 4만명 발급, '24년 쿼터확대 추진
 - * (E-9) 기본 쿼터 11→12만명, 업황 변동에 따른 탄력 쿼터 1→2만명+α로 확대

4

현장으로 해소

◇ 수출현장 애로를 즉시 개선하고, 수출애로 발굴 체계 확대 가동

- **(수출기업 지원)** 위험국가 여권사용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해외영업 지원,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조달 인센티브 강화* 등
 - *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수출실적에 따른 평가 배정 차등화
- **(수출119 운영)** 수출 애로를 현장밀착형으로 해소하는 '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월 2회), 유망수출기업 방문 컨설팅 신설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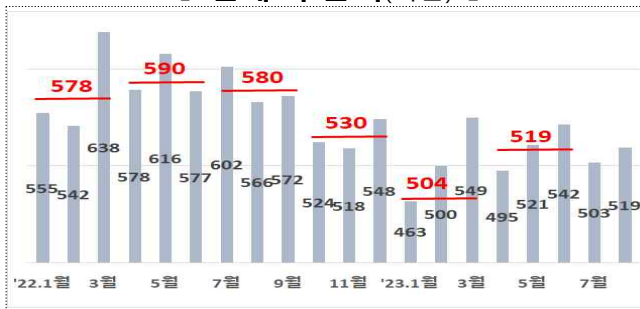
I.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1
II.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3
1. 수출품목 다변화	5
①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5
② 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	12
2. 수출지역 다변화	19
① 주력시장(미국 · 중국 · 아세안)	19
② 新전략시장(중동 · 중남미 · EU 등)	21
3. 수출인프라 보강	24
① 무역금융	24
② 마케팅 · 전시회	25
③ 수출바우처	26
④ 해외인증	27
⑤ 통관 · 물류	28
⑥ 인력확보	31
4. 현장애로 해소	32
III.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34

I.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수출]** '23.1~8월 수출액은 전년比 $\Delta 12.4\%$ 감소(4,093억불) 하였으나, '23.1분기 저점 이후 전분기比 개선 흐름

- (품목) 자동차, 이차전지(양극재 포함), 기계, 선박 수출 증가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부품, 석유제품·油化 큰 폭 감소

【 전체 수출액(억불) 】



【 '23.1~8월 품목별 증감률(전년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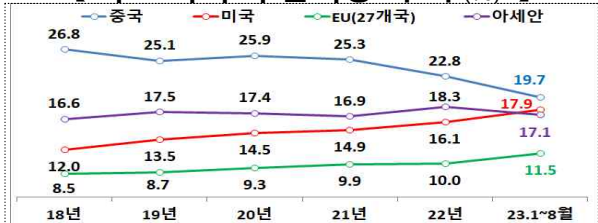
증가		감소	
▶ 자동차	(+39.5)	▶ 반도체	($\Delta 34.9$)
▶ 이차전지	(+20.4)	▶ 디스플레이	($\Delta 22.0$)
(양극재포함)		▶ 무선통신	($\Delta 15.6$)
▶ 선박	(+5.2)	▶ 가전	($\Delta 4.7$)
▶ 일반기계	(+2.6)	▶ 컴퓨터	($\Delta 58.4$)
		▶ 석유제품	($\Delta 25.4$)
		▶ 석유화학	($\Delta 22.1$)
보합		▶ 철강	($\Delta 10.8$)
▶ 차부품	($\Delta 0.4$)	▶ 바이오	($\Delta 25.5$)
		▶ 섬유	($\Delta 13.2$)

- (지역) 對中·아세안 $\Delta 20\%$ 수준 감소, 對美 보합, 對EU 증가
 - 美-中 간 비중 격차('23.1~8월 : 1.8%p)는 '03년(0.4%p) 이후 최소

【 주요지역 월별 수출증감률 (%) 】



【 주요지역 수출비중 추이 (%) 】



* 최근 對中 수출수지(억불, '23.3~8월) : (수출) 105 → 95 → 106 → 105 → 99 → 105
(수지) $\Delta 27 \rightarrow \Delta 23 \rightarrow \Delta 18 \rightarrow \Delta 13 \rightarrow \Delta 13 \rightarrow \Delta 12$

□ **[수입]** 에너지($\Delta 22\%$)·非에너지($\Delta 9\%$) 모두 감소한 4,333억불($\Delta 12\%$)

* 가공단계별 수입액 비중('23.1~8월, %) : (중간재) 58.0, (자본재) 14.4, (소비재) 14.9 / (에너지) 22.7

-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원유·가스·석탄 수입 모두 감소
 - * 에너지원별 수입액·증감률('23.1~8월, 억불) : 원유 549($\Delta 24\%$), 가스 290($\Delta 12\%$), 석탄 145($\Delta 27\%$)

- (非에너지) 반도체·철강 등 중간·자본재 감소, 소비재는 보합
 - * 가공단계별 수입증감분('23.1~8월, 억불) : (중간재) $\Delta 254$, (자본재) $\Delta 46$, (소비재) $\Delta 22$

□ **[수지]** '23.1월 이후 무역수지 개선 추세, 6~8월 연속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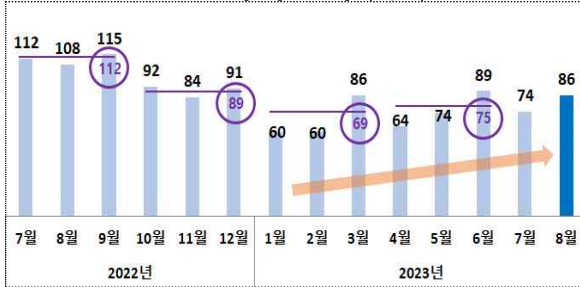
* 무역수지(억불, '23.1~8월) : $\Delta 126 \rightarrow \Delta 53 \rightarrow \Delta 47 \rightarrow \Delta 28 \rightarrow \Delta 22 \rightarrow +11 \rightarrow +17 \rightarrow +9$

[Box : '23.1~8월 주요품목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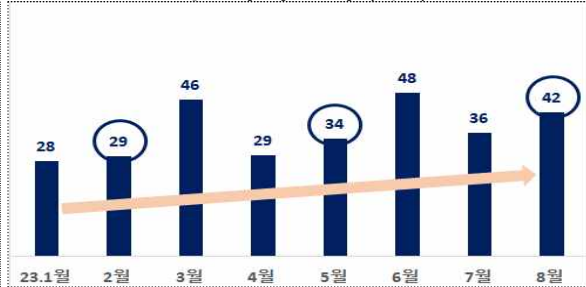
□ (반도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수출 개선 추세

- 메모리의 경우 반도체 수출의 49%를 차지하며, 감산 효과와 고성능 D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액 소폭 증가 흐름

【 반도체 수출액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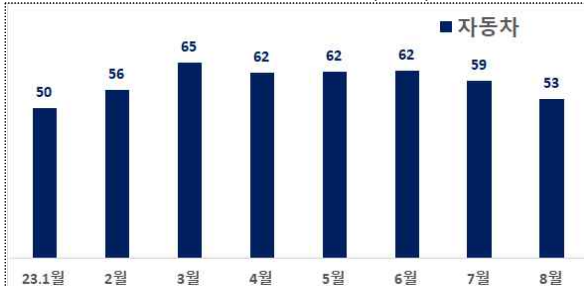
【 메모리 수출액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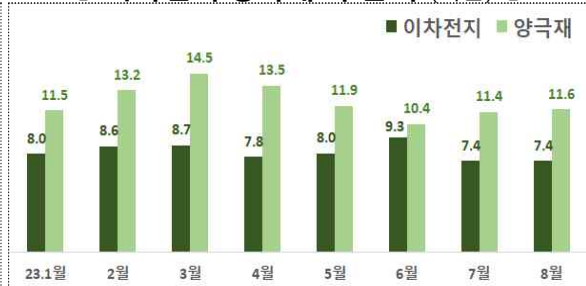
□ (자동차·이차전지) 월 평균 79억불 수준, '23년도 전체 수출 견인(+34.0%)

- 자동차 수출은 月 50억불 이상 유지, 전기차<'23.1~8월 자동차 수출 內 비중 : 24%>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호조세 지속
- 이차전지·양극재 수출은 전기차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연계하여 月 수출 20억불 수준 유지

【 자동차 수출액 (억불) 】



【 이차전지·양극재 수출액 (억불) 】



□ (선박) '21년 수주호황기 물량의 생산·인도가 본격화되면서, 3월 이후 月 17억불 수준 유지, 8월 누계 수출 +5.2% 증가

* 선박 수출액 추이(억불) : '23.1분기 13.6 → 2분기 17.1 → 7월 17.5 → 8월 16.1

□ [전망] 6월부터 이어지는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수출) 자동차·이차전지(양극재 포함)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 선박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
- (수입) 에너지는 유가 소폭 상승, 동절기 수요 증가 영향으로 연말로 갈수록 증가, 전체 수입은 상반기 수준 감소(전년比)

* 유가 전망(Brent, \$/b, EIA) : ('23.2분기) 78.0 → (3분기) 83.8 → (4분기) 87.7

II. 수출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 ◇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한 방안 추진 +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 보강
- ◇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애로 해소 추진

※ (밑줄) 신규 과제 / (점선_밑줄) '24년 예산안 포함 과제

수출 품목 다변화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 투자 지원* 확대 * 보조율: (現) 29% 수준 → (改) 최대 50% ▶ (반도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번째 사례 ▶ (이차전지)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규 선정(3개교) +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총사업비의 5~30% 국고지원 가능 ▶ (바이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R&D 국제협력 추진 * 韓 의료데이터와 美 첨단바이오 기술 융합·활용, 의사과학자 양성 등 +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年 10~15개 기업 해외진출 지원) ▶ (디스플레이) 대형 장비 운송을 위한 신속 운행 허가 지원 ▶ (조선) 무보 RG 특례보증 2천억원 신규 공급 + E-9 조선업 쿼터 추가 확대 + 제조사(조선사)도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허용 ▶ (자동차) 컨테이너선 이용시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 적용 확대 * (現) 당일, 같은 장소에서 검사 → (改) 일주일 내 검사한 물량
	유망분야 신수출동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디지털 新제품·서비스 ICT 융합품질 인증 확대 + 브랜드-K 선정분야 확대(現콘텐츠 등 → 改ICT/SW 서비스 추가) ▶ (콘텐츠) 'K-콘텐츠 전략펀드' 1조원 규모 조성 추진('24~'28) ▶ (농수산물)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23년 44 → '24년 328억원) + 연말까지 딸기 등 신선품목 물류비 지원비율 확대(최대 15 → 25%) ▶ (에너지) 전력공기업-국내 기자재 업체 해외동반 진출 인센티브 강화 * 전력공기업의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 활용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부여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신규 조성(포항, '24~'28) ▶ (녹색산업) 인니(10월), 콜롬비아(11월)에 현지 전담팀(기업+전문가) 파견 + 기업 1:1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9월~, 20건 이상)

수출 지역 다변화	주력시장 (美·中·아세안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업) <u>한중 경제장관회의·경제교류협의회 개최</u> 추진(연내) ▶ (해외진출 지원) <u>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예타 기간 단축</u> *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하여 조사기간 단축 ▶ (현지거점 구축) <u>미국 內 거점 반도체 협력센터 및</u> <u>미국·일본 內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신설('24년)</u> + <u>미국(LA)·베트남(하노이)에 해외물류센터 추가확보(12월)</u>
	新전략 시장 (중동·중남미 ·EU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업) <u>경험·수주활동 지원 등 민관협력단 현지활동 강화</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강화 위한 화상협의 지속 추진 · (폴란드) 한-폴란드 차관급 협의체 운영(9월~) · (사우디) 기업 서틀경제협력단(9월) 및 원팀코리아 파견 · (파라과이) GICC에 파라과이 공공사업부 장관 초청(연내) ▶ (해외진출 지원) <u>고위험·저신용국 수주사업 지원을 위해 수은</u> <u>특별계정 2,500억원(정부 1,000+수은 1,500억원) 추가 조성</u> + <u>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위해 무보 무역금융 확대('23년 17.8→'24년 20조원)</u> ▶ (현지거점 구축) <u>중동 등 전략시장 중심 현지 거점무역관 확대</u> (원전: 10→16개소, 방산 20→31개소, 플랜트 7→11개소 등)
인프라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금융) <u>연말까지 최대 181.4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u> * 무역금융 잔액 158.6조원 + 민관합동 수출금융 22.8조원 ▶ (해외마케팅) <u>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대상 및 기업당 지원액 확대</u> * (기업수) 5,478 → 5,646개사(+168), (기업당) 12.6 → 15.1백만원(+19.8%) + <u>K-브랜드 마케팅 지원 대상 확대</u>(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추가) ▶ (수출바우처) <u>수출바우처 '24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메뉴판) 확대</u> * 지원규모: ('23) 1,441억원/3,473개사 → ('24) 1,679억원/3,984개사(+238억원/511개사) + <u>신청 시기 분산</u>(年 1회 → 2회 이상) + <u>수행기관 지정방식 개편</u> ▶ (해외인증) <u>의약품 해외 자동승인제도 확대 위한 MOU 추진</u>(남미국가 추가) + <u>의약품 수출 상호인정협정 체결국 확대 추진</u>(싱가포르) ▶ (물류·통관) <u>부산항 신항 수출 컨테이너 반입 가능 기한 확대*</u> 협의 지원 + <u>부산항 신항 신규터미널 준공</u>(12월) + <u>중소 보세공장 허가기준 완화</u>(10월~) * 접안일 3~4일 前 → 중소화주 대상으로 5일 前 ▶ (인력 확보) <u>연내 4만명 외국인 고용허가서(E-9) 발급</u> + <u>'24년 쿼터 지속 확대</u> 	
현장 애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해소) <u>'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u>(월 2회 이상 개최) ▶ (기업지원) <u>여권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수출기업 조달 인센티브 강화</u> 	

1. 수출품목 다변화

1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 투자지원·인력양성·국제협력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재정·금융 지원 강화

- 금년 신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7개소)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융자)·보조금 등 지원 강화

*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포항, 청주,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천안·아산)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R&D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 신설(기업당 50억원 한도, 금리 1~2%내외)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확대**(現 29% 수준)

- 기술 유출 가능성이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수출 신고·승인절차 간소화 지원 지속(산업기술보호지침 개정^{*}(7.26일)) 현장으로

* **연간포괄심사 도입**(완제의약품 해외 인·허가, 해외자회사 공동연구), **서면심사 우선 적용**(해외특허분쟁 대응), **심사대상 제외**(특허권자가 특허 출원시 공개된 자료만 이전하는 경우)

현장의 목소리 **대한상의** :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대상에 소송 대응 목적 등 통상적 수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까지 포함 → 특허분쟁 및 해외 인·허가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반도체]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 R&D·인재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

-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신속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번째 사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계획(안)

위치	면적	개발 구상(안)
경기 용인 (남사읍)	710만㎡ (215만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 구축('23~'30년) ■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 연구기관 등 유치→제품·기술개발 협력 ※ 직접고용 3만명 이상, 고용유발 160만명 이상 예상

-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유망 분야에 대규모 R&D를 지속 추진

▶ (차세대지능형반도체) 1조96억원('20~'29) ▶ (PIM인공지능반도체) 4,027억원('22~'28)
▶ (화합물전력반도체) 1,385억원('24~'28) ▶ (차량용·첨단패키징 등) 2.2조 이상 계획

- 반도체 특성화대학, 단기 교육과정(부트캠프) 등 인력양성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 (특성화대학) 반도체 신규 10개 추가('23년 8개) → 총 18개
▶ (부트캠프*) 반도체 신규 17개교 내외 추가('23년 10개교) → 年 4,000명 육성
* 대학+기업이 협업하여 1년 이내 집중교육 → 반도체 분야 취업 지원

- 기업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펀드'를 조성('23.7~)하여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강화

□ [이차전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품목 고도화 집중 지원

- 산학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을 신규 선정(3개교)하고, 핵심 인프라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포항)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총사업비 5~30% 범위에서 국고 지원 가능(투자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

- 수출품목 고도화·품목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적극 추진

- 배터리 성능(에너지밀도)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R&D에 대한 신속 예타 추진(~11월)

- 우리 주력 제품인 삼원계 배터리의 대안으로 부상중인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등의 개발을 위한 신규 R&D* 추진

* 저가격·장수명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셀 제조기술 개발(신규, '24년 26억원)

- 소부장 기업과 배터리 기업의 협력형 R&D 과제를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즉시 실증 가능한 배터리 파크* 구축

* (기간) '22.3~'26.2월, (예산) 총 341억원 (기능) 시제품 제조, 성능·안전평가, 기업지원 등

□ [바이오]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며, 해외정보 제공 강화

① (맞춤형 지원) 바이오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및 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협업을 통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바이오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여 우수 기업(年 10~15개 기업) 맞춤형으로 해외 진출 집중 지원

- ‘메디스타¹’ 이니셔티브² 유망기업 30개사 해외진출 집중 지원²

1)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서비스 등 분야 국내기업

2) 시장조사, 현지출장 지원, 거래선 발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쇼케이스(전시) 등 지원

- 주요국 무역관 內 K-바이오데스크 7개소를 설치하여 인허가, 통관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 및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 미국(LA),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등 '24년 7개소 설치 추진

- 국내외 세계 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연구자 해외선도 연구 참여 지원 등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24년~)

* 韓 의료데이터-美 첨단바이오 기술을 융합·활용, 의사과학자 양성 등

- 수출용 의료SW 제작시 해외 현지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영국 등 선도국*과 국제협력·공동연구 추진

* 미국 연구프로그램(All-of-Us), 영국 바이오 बैं크(UK Biobank)와 협력 등

② (정보제공) 해외시장 동향, 보건·의료분야 국제입찰 등 정보제공

- 주요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및 시장동향·해외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바이오헬스 릴레이 수출설명회 개최('23.9~11월)

* (9월)미국 보스턴 → (10월)UAE → (11월)인도네시아 바이오헬스 수출상담회

- 해외 바이어 초청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9.14-15), EU CPHI* (23.10) 한국관 운영 등을 통해 1:1 수출상담 및 해외시장 진출정보 제공

* 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 국내 보건·의료분야 기업의 국제입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구 입찰정보 신속제공 및 입찰참가 신청서 작성 지원 현장예

* 국제의료조달정보센터(GHPIC) 홈페이지에서 UN, ADB, WB 등 국제기구의 보건의료분야 입찰 공고 정보 제공

현장의
특소리

제약·바이오협회 : 약 19조원 규모의 보건의료분야 국제입찰 시장, 각국 정부 주관 공공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요청

□ [디스플레이] 고도화된 시험생산 인프라 및 산업융합 실증센터 구축

- 대기업 R&D 라인과 동등한 수준의 OLED 패널 **시험생산 인프라***를 '24년초까지 구축하여 소부장 기업의 신기술 검증 지원

*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천안, '24.上 준공, 총 1,595억원)
: OLED 패널 제조에 필요한 쏘 공정 장비 65대 구축

- **미래차용 디스플레이** 성능·신뢰성 및 사용자 안전성 등을 종합 검증 가능한 **실증센터** 구축('23~'27년, 총 146억원)

-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고, 산학연계 인력 양성을 위해 **부트캠프(단기교육프로그램)** 4개교 내외 설치('24~)

- **디스플레이 등 대형장비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운행기준을 초과하는 운반차량의 신속한 운행허가 지원** 현장
애로

* (現) 운반차 크기가 관련기준 초과시 기업이 **경로상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 필요
(改) 기업애로 발생시 국토부·도로관리청-기업 간 협의체 구성→ 최적 인허가 방안 마련

현장의
목소리

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현행 「도로법」 및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 체계로는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장비 수출 등에 애로

□ [철강] 철강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및 통상협력 강화

- '23.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개시** 대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보고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제작·배포(9월)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CBAM, 지속가능한철강협정(CSSA) 등 대응협력 강화**

*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23.5), 한-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23.9) 등 정례개최

- 2천억원 규모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¹⁾** 사업 추진 및 **친환경 원료 확보**를 위한 **“철자원 산업육성전략²⁾”** 마련(4분기)

1) 고로·전기로 탄소감축기술, 수소환원제철 설계기술 등('23~'30, 총사업비 2,097억원)

2) AI 기반 스크랩 검수 기술 도입·확산, 등급분류 표준 개선, 통계기반 구축 등

□ [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인력수급 지원

- 지속적인 선박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적시에 충분한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 (삼성) 8월중 RG 24.5억불 분담한도 추가 설정 + 필요시 24.5억불 추가 설정 예정
(현중계열) 연초 설정한 발급한도 70.6억불 내 지속 공급 + 부족시 추가 한도설정 협의
(중형조선사) 지방은행 등 참여를 통해 하반기에 3.3억불 수준 공급 예정

- 400억원 신규 출연(운용배수 5배)을 통해 무보의 RG 특례보증 2천억원 추가 공급

-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및 미래 조선산업 인재 양성

- 단순노무인력(E-9) 조선업 별도 쿼터(현재: 5,000명)를 쿼터 소진을 등을 고려하여 내년 쿼터 배정시 확대 검토

- 신규 입직자 대상으로만 제한되었던 공제사업*을 재직자에게도 확대(2만명 목표, '24년 예산 100억원)하여 장기근속 지원

* 2년 만기 800만원 지급(근로자·기업·지자체·정부 각각 200만원 납입)

-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 조건부로 일정기간 현장교육 수료시 전문인력 자격(E-7) 변경 허용

- 친환경·스마트 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을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 신규 설립('24년 750명)

- 친환경 선박 건조실적 인정 및 인센티브·지원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조사(조선사)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현장으로}

* (現) 발주사·선주만 친환경 선박 신청 가능 → (改) 제조사(조선사)도 허용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수부·산업부령)」 개정)



한국경영자총협회 :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주체가 선주 등으로 한정 → 선주 인증 미신청시 조선사는 친환경선박 건조실적 공시 불가 + 친환경 녹색활동(K-Taxonomy)으로 미인정

□ **[자동차]** 전기차 신흥국 진출 + 수출물류 애로 해소 중점 추진

- 정상외교 등을 활용하여 **신흥시장 전기차 수출 확대** 추진
 -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 MOU***’ 체결(‘23.9월) 등 급성장하는 신흥국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
 - * 인프라·인력·R&D·제도 등 4대 분야에서 양국간 전기차·전기이륜차 협력확대 추진
- **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최초 지정***(‘23.7월, 광주 자율차, 대구 전기차 모터) 등 **첨단자동차 부품 생태계 활성화** 지원
 - * 소부장 특화단지 : 기존 5개(반도체 등) → 10개(광주·대구 자동차 특화단지 지정)
 - ↳ 인허가 신속처리·인력양성·R&D 등 기업집적화 지원
- **원활한 수출운반선 확보**를 위해 **해운협회·자동차산업협회 간 협조체계**를 가동*하여 자동차 수출물량 증가 대응 역량 강화
 - * 자동차 수출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해운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3.3)
- **자동차 수출시 전용 운반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 요건 완화*** 현장으로
 - *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35%) 요건: (現)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 → (改) 일주일 내 검사 물량에 할인 적용으로 확대



자동차 수출기업 : 자동차 전용 선박 부족으로 컨테이너선을 활용한 수출 시, 차량 연료 관련 위험물 검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이 큼(자동차 1대당 약 11,633원)

□ **[석유화학]** 나프타 관세율 0% 연말까지 적용 + 해외규제 적극 대응

-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기초원료인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관세율 인하(0.5→0%)
- **주요 수출국 수입규제** 관련하여 **업계·협회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미국, 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 국가별 수출비중(‘22년, %) : (중국)38.1 (미국)8.2 (베트남)5.9 (인도)5.5 (일본)4.1
- ‘**민관합동 비상대응 협의체**’를 출범(‘23.9월)하여 **업계의 사업 전환 및 경영애로 해결** 지원

- 국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연간 제조·수입량 '**0.1톤 → 1톤 이상**'으로 조정 **현장으로**



무역협회, 석유화학협회 : 일부 화학첨가제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100가지 넘는 물질에 대한 등록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모델은 단종을 고려

□ **[일반기계] 수출국다변화 및 현장으로 해소를 통한 수출역량 강화**

- 범부처 '**한-사우디 서틀경제협력단**'('23.9) 파견 계기, 민·관 합동 '**건설기계 수출사절단**'을 구성하여 **사우디 등 중동국가**에 파견(연내)
- 중동 건설프로젝트 수주시에 한국 건설기계 수출 연계*를 위해 **건설사-건설기계 업계간 자율협의** 유도('23.下) **현장으로**

* '23년 상반기 기준 해외건설 수주 중 중동지역이 38%를 차지하나 영업방식의 어려움으로 건설기계 수출 중 중동 비중은 6.5%에 불과



건설기계 수출기업 : 대리인을 통해 영업을 해야하는 중동의 특성 상 건설분을 건설기계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건설기계업체가 한국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필요

- 공작기계 미국 수출을 위한 **전략물자 포괄허가* 절차·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추진('23.下)

* 수출업체는 특정 품목과 사용자에 대한 개별수출허가와 불특정 품목·사용자에 대하여 **포괄수출허가**(민수용 한정) 진행 가능

◇ 디지털, 에너지, 콘텐츠, 농수산식품, 녹색산업 등 수출 확대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 유도

□ [디지털] 우수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적 지원

- 디지털 新제품·서비스에 대한 ICT 융합품질 인증*을 확대 하여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 확대 지원

* ICT 융합 新기술의 조기 시장출시 지원을 위하여 시험·현장평가 등을 거쳐 품질인증 부여(기계·물류, 건설, 의료 등 12대 ICT 융합 분야 대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시 ICT 융합품질인증 제품에 가점을 부여하여 디지털융합 우수제품의 해외진출 촉진^(24~)

- 디지털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브랜드K¹⁾' 상표 부여대상에 ICT/SW 서비스 추가²⁾

1) 독자적 브랜드파워가 약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브랜드K' 공동상표 부여

2) (現) 디지털 소비재 항목에 한정 → (改) ICT/SW 서비스 추가

-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입점 등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 확대

- 온라인 수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입점 지원을 미국·중국 등 주력시장 중심에서 중동·인도 등 신시장까지 확대

* (現) 아마존.이베이(美), 라쿠텐(日), 타오바오.티몰(中), 라자다(아세안) 등 중심 (改) 중동(Noon), 인도(플립카트) 등 까지 확대

- 경쟁력을 갖춘 SW 분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현지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아마존, MS 등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의 마켓플레이스에 국내기업의 SaaS 등록, 클라우드 테크 컨퍼런스 전시·참여 등 마케팅 지원

○ '초격차 스타트업 1000+¹⁾' 대상에 디지털 분야²⁾ 신규 선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24~)

1) 민간 중심의 검증을 통해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스타트업 선발 및 사업화글로벌 진출 지원

2) 선발분야: (現)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추가) 빅데이터, AI,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등

○ ICT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미국과 중동에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23.9~10월)

* ① 고위급 면담, ② 기업 전시회(현지행사와 연계), ③ 현지 파트너십 등 추진

○ 전략물자 비중이 높은 SW 분야 전략물자심사 지원 강화 현장
애로

연장의
목소리 **SW협회** : ① SW수출의 50% 이상이 전략물자, 연간 3천건 이상 신청 → 심사에 한달이상 소요, ② 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절차 미이행으로 형사처벌 받는 사례 발생

▪ SW 분야의 전략물자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원 내 SW 분야 판정 인력을 보강

* (現) 전략물자 판정에 최대 30일 소요 → (改) 20일 이내로 단축

▪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 제공('24~)

▪ 새로운 SW 수출유형인 서비스형 SW(SaaS)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판정기준 개선방안 마련*('24~)

* SaaS(Software as a Service) 유형에 적합한 수출통제 법제연구, 사례발굴 등 추진

□ **(화장품) K뷰티의 높은 관심을 활용하여 현지 홍보관 등 마케팅 강화**

○ 방한 외국인, 수출 유망국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관('23.4분기), 해외 판매장('24~) 등 확대 운영

* ① K-뷰티 홍보관 1개소 추가운영('23.4분기) 및 해외화장품판매장 2개소 신규운영('24),

② K-문화 해외상설홍보관 1개소 추가 참여('24)

□ [콘텐츠]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 제작 지원 신기술 인프라 조성

- 글로벌 시장 공략 K-콘텐츠·미디어 육성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등 운용상 제한¹⁾이 없는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²⁾ 추진
 - 1)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 등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 대형 콘텐츠,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제고
 - 2) '24~'28년 간 총 1조원 규모 조성 계획 ('24년 0.6조원 조성)
- 차세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LED, 시각 특수효과 활용 촬영 등 대형 콘텐츠 제작지원용 신기술 인프라 구축('24~'25년 250억원)
- K-팝 음원의 해외유통 절차간소화를 위해 현재 각각의 코드 발급절차가 필요한 국내·국제표준코드 동시 발급 추진 현장
예로

현장의
목소리

한국음악콘텐츠협회 : 음원 유통은 국내(UCI), 해외(ISRC) 등 유통방안에 따라 각각의 코드 발급이 필요하나, 코드별 발급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실무적 어려움 존재

- 1인 창작자의 기획력 향상 및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웹툰 해외 컨퍼런스·마켓 참여 등 지원 대상에 포함 현장
예로

현장의
목소리

한국만화가협회 : 현재 기업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개인 작가들의 기획력 향상을 위한 해외 컨퍼런스·마켓 참여 등 필요

□ [스마트팜] 수요가 많은 사우디 등 시장 개척 집중 지원

- 우리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우디 시장 개척·진출
 - 스마트팜, 식품, 건설·플랜트 기업을 중심으로 제3차 한-사우디 서틀경제협력단 파견('23.9)을 통한 사우디 신시장 개척 지원
 - * B2B 상담회(30개社),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한-사우디 정부기업 60여명), 농식품 시식회
 - 현지 수요가 높은 품종 위주로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 * (기조성) 베트남·카자흐스탄 → ('23) 호주(12월 준공), 사우디(신규) → ('24) 신규 1개소

□ [농수산] 바우처 확대, 물류체계 개선 + 물류비·마케팅·분쟁 지원

- 농식품 수출지원을 위해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23년 44→'24년 328억원)하고, 지원항목(메뉴판*) 다양화

* (現) 컨설팅, 제품개발, 출원, 인증, 판촉홍보 등, (추가) 세무 자문, 온라인몰 입점 지원 등

-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수출 쏙단계에 걸친 농수산물 수출 특화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신선도 제고 및 물류비 절감

- 농식품 수출단계별 저온유통, 신선도 유지 기술이 적용된 컨테이너, 해외 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지원

* 공동물류센터 : 독일, UAE 신규 개소, 콜드체인 : 인도네시아 신규 개소

- 수산식품의 중국 내륙지역까지 냉동·냉장 운송비 지원 및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업체의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서비스 지원

- 딸기, 포도, 배 등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신선품목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¹⁾ 물류비 지원비율 확대(최대 15% → 25%)²⁾ 현장 애로

1) 주요 신선품목 출하기(딸기: 11~4월, 포도: 8~1월, 배: 8~1월) 계기 집중 지원

2) 지원비율: 최대 15%(중양5%+지자체10%) → 25%(중양10%+지자체15%) 확대 (10%p ↑)

현장의 목소리

신선품목 수출업체 : 수출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딸기 등 신선품목에 대해 추가 물류비 지원 필요

- 온라인·한류 등 트렌드와 농수산물 연계 강화로 소비 저변 확대

- 주요 농수산물 품목¹⁾에 대해 드라마 등 K-콘텐츠 연계 간접 광고·홍보콘텐츠 제작(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²⁾ 및 판촉·홍보 추진

1) (농) 딸기, 포도, 배, 파프리카, 김치, 쌈장, 떡볶이, 스낵류, 인삼, 펫푸드 총 10개 품목
(수) 김(김밥김, 자반, 부각 등), 연어칩, 소금, 어묵, 게장, 명란, 어육소시지 등 7종류

2) 식품, 소비재 등과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간접광고·홍보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수출업체의 온라인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몰 한국 식품관'을 확대('23.9월 日·獨 추가, '23년 총 15개소)하고, 지자체 연계* 강화

* '한국식품관'(※티몰 등 4개소) 내 '지자체 우수식품관' 개설(수도권·강원·경상·전라·제주·충청)

- 해외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과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한 한국수산물 홍보 및 실시간 온라인 방송판매 추진

* 기존 상온 품목(김, 통조림 등) 위주의 라이브커머스 한계를 보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매장 구매리뷰 등 팬덤커머스 연계 추진(4개국 60회 이상, 120개 제품)

○ 농수산물 분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추진(9월~)

- 日·中·美·아세안 현지 주요 유통시장 연계 인기 농식품 집중 판촉(~11월)

* 日 이온·코스트코, 美 H마트, 中 허마셴성, 아세안 롯데마트 등 2천여 개소 연계

* 배·포도 등 신선 농산물 주 출하기 계기, 한국산 식별마크(홀로그램) 부착·홍보 병행

-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 대상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을 위한 수출 상담회·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주요 시장 K-Food Fair 개최

▶ (농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¹⁾·K-Food Fair²⁾ 개최, 국제박람회³⁾ 참가 지원

- 1) 하반기 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11.15~17, aT센터) 개최
- 2) 日·中·美·아세안에서 수출상담회(수출업체 186여사 참여)·소비자 체험 통합 'K-Food Fair' 개최(~10월)
뉴욕(8월, 41개사), 하노이(9월, 34개사), 도쿄(9월, 42개사), 상하이(9월, 40개사), 쿠알라룸푸르(10월, 29개사)
- 3) 中·아세안·EU 등 주요 시장 국제박람회 내 한국관 운영(8~11월, 11회), 228개사 참가 지원

▶ (수산물) 수산물식품 수출업체 대상 무역상담회¹⁾ 및 국제박람회²⁾ 참가 지원

- 1) 국내 수산물식품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의 1:1 수출상담 제공,
중국 상해(8월, 20개사), 미국 뉴저지(9월, 20개사), 태국 방콕(10월, 15개사)
→ 무역상담회 개최 시 지자체별 수산물(예: 완도 전복, 통영 굴 등)
전시 공간을 별도 조성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홍보 추진
- 2) 국제박람회장 내 한국관 부스 설치하여 한국 수산물식품 전시 등 홍보,
일본 도쿄(8월, 10개사), 중국 상하이(9월, 2개사), 중국 청도(10월, 16개사)

○ 우리 주류의 해외 모방품 방지¹⁾를 위해 주류 업계와 협의하여 민관 합동 피해기업 간 협의체²⁾ 구성, 대응전략(단속·소송) 마련 및 지원 추진

- 1) 한국산 소주를 모방한 해외 로컬 소주가 태국 시장의 60% 말레이시아 시장의 10% 점유
- 2) 피해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모방) 상품 업자 공동대응('14년~)

□ [에너지] 중소·중견기업 동반 진출 + 수소기업 성장 기반조성

-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전력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 활용시 경영평가에 반영*** 현장으로

* 국산 태양광 풍력 제품을 신제품(NEP), 신기술(NET)로 인정하여 경영평가 가점 부여

현장의 목소리

풍력 터빈 제조업체 : 대기업·발전공기업의 해외수주시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산 기자재 사용 유인이 낮음 *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중국과 우리기업이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입주·집적, 소재·부품 성능평가 및 연료전지 실증 등을 지원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신규 조성

* 포항 블루밸리 산단 내 연료전지 기업 집적화단지(30개사 입주 가능)로 소재·부품 검증 및 인증 등 평가 장비 구축 (1,918억원, '24~'28년, 포항)

-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 육성 촉진을 위해 R&D 투자비중 **완화** 등 **수소 전문기업¹⁾ 지정기준 개정²⁾** 검토

1)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수소 관련 R&D 투자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마케팅, 해외진출 등 지원

2) 現 수소전문기업 선정 요건(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R&D 비중	3% 이상	5% 이상	7% 이상	10% 이상	15% 이상

□ [원전] 국가별 맞춤형 접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

- **체코, 폴란드** 등 신규원전 도입이 유력한 국가* 대상으로 금융 지원, 산업 협력 등 맞춤형 세일즈 활동 전개

* (체코) '36년 준공 목표 원전 1기 건설 예정 / (폴란드) 폴 민간 전력사 주도 원전 2기 건설 예정

-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지속 운영

*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여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

- **원전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독자적인 수출역량 강화

* 시장조사, 금융, 마케팅, 인증 등 해외진출 전 주기에 걸쳐 패키지 지원

□ [녹색산업] 견고한 민·관 원팀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수출·수출 지원

-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민·관 원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로 맞춤형 밀착지원 추진

*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 제공 등

- **‘녹색산업 얼라이언스’**(‘23.1 출범)를 중심으로 **기업별 1:1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 → **금년 내 20건 이상 추가 지원**

* 긴밀한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단위 사업별 지원 추진 → 환경부,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社, 유관공기업, 수출금융기관 등 33개 기관 참여

- **베트남(10월), UAE(11월)** 등 주요 수주일정별 **장·차관**(환경부)을 필두로 하는 **세일즈 외교**로 수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

- 녹색산업 **신규 유망시장 발굴**(인니, 중남미 등) 및 진출 지원 강화

- **개도국 등 해외 환경난제에 대한 현지진단팀**^{*}(전문가+기업) 구성·파견으로 K-환경정책을 수출하고 신규사업 발굴(‘23.10~)

* ‘23년 시범사업 : 인도네시아 물분야(10월), 콜롬비아 폐기물처리(11월)

- **미국 실리콘밸리 시장개척단**(녹색기술 설명회 + IR Day) 파견(‘23.12)으로 **한국 녹색 新기술의 선진시장 진출 가속화**

- 투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수주·수출기업 재원조달** 지원 확대

- **녹색 프로젝트를 위한 녹색채권**(‘23, 3조원) 이자를 지원하고 **녹색산업 융자**^{*} 대상에 **녹색산업 수출기업** 추가(‘23.3분기~)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23, 3.5조원, 평균 △1.8%p 우대), 미래환경산업 융자(‘23, 3.7천억원)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해외 녹색산업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¹⁾에 **수출입은행도 신규**로 참여²⁾

1)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은 대출상품을 설계하면 금융기관이 적용한 우대금리의 50%를 정부에서 보전(기후대응기금)

2)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사업 참여 기관: (現) 산은·신한은행 → (확대) 수출입은행

2. 수출지역 다변화

1 주력시장 (미국 · 중국 · 아세안)

◇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정부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밀착지원을 위한 현지 지원센터 구축

□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간 협업 공고화

-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¹⁾, 한중경제협력교류회²⁾를 개최하여 양국 정부·기업간 경제협력 활성화 적극 추진

1) 문화 콘텐츠 등 중국에 진출(예정)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의제로 적극 반영

2) 경제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기업·싱크탱크 간 교류 등

- 한미일 정상회담(8.18일)을 계기로 체결한 각국 개발금융 관련 기관간 금융협력 MOU 등을 토대로 인태지역 등 제3국 인프라 협력* 확대

* 인프라(ICT, 에너지, 항만, 공항, 교통), 탄소 중립 등 분야 공동지원 사업 발굴

- 對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중점 추진

-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등 주력산업 초격차 경쟁력 유지 전략을 지속 추진하며, 중국 시장 유망품목* 진출 지원 확대

* 중국 정부의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 연계 분야 등

- 中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 1인 가구 맞춤 소비재, 프리미엄 유아용품, 한류활용 패션의류 등

□ 해외진출 적기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 + 주요 품목 현지 지원거점 구축

-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원활한 사업수주 지원
 - 대주단¹⁾이 참여하는 해외투자사업의 예타 평가시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²⁾하여 조사기간 단축
 - 1)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주(금융기관 등)들이 모여서 결성한 컨소시엄
 - 2)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 또는 우대에 관한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
 -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 '24년부터 시행
- 해외에 현지·합작법인 설립 또는 예정인 국내 창업·벤처 기업 등*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 조성('24년~)
 - * 예 : 해외 현지·합작법인 설립, 해외 수출비중 확대, 해외기업 M&A 추진 등
- 국내 ICT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현지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 지원('24년 신규 10개社)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 미국·중국·일본·필리핀 등 전세계 18개국 현지 29개 조인트벤처 완료 성과('21~, 누적)
- 우리 기업이 해외 물류거점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국내기업 간 합작¹⁾을 통해 해외 물류센터 추가 확보 추진²⁾
 - 1) 미국(부산항만공사), 베트남(울산항만공사) 민간 참여사와 합작 법인 추진 중
 - 2) (現) 인도네시아 자바 주('21.9), 네덜란드 로테르담('21.12), 스페인 바르셀로나('22.6)
→ (改) 베트남 호치민('23.12), 미국 LA 등 추가 확보 추진
-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해외 거점센터 구축
 -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미국 등 현지수요 발굴-매칭-검증-마케팅 지원을 위한 거점지역 협력센터* 신설·운영('24년~)



반도체 팹리스기업 : 주문형 생산방식인 시스템반도체의 특성을 고려, 미국 등 현지 신속대응을 위한 지원 센터 구축 필요

- 美(LA)·일본(도쿄)에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신규 구축('24년~)

◇ 대규모 건설·플랜트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정부간 협력 + 금융지원 + 현지 거점센터 확보 + 정보제공** 등 패키지 지원 추진

□ 민 · 관 합동 「원팀코리아」 활동 등을 통한 수주 역량 강화

[우크라이나, 폴란드]

○ **한-폴-우크라 3각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 우크라 재건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한-폴 차관급 협의체*** 운영(9월~)

* (구성) 국토부^한, 폴-우 개발협력 전권대표^폴 / (방식) 분기별 1회 대면 또는 화상회의 개최

▪ 국토부-^{우크라}인프라부 간 화상협의¹⁾ 지속, **GICC²⁾ 우크라 재건 특별세션**(9.20) 운영 등으로 재건 수요 파악 및 시범사업 협의³⁾

1) '23.6월 이후 화상회의 총 10차례 개최(9.1 기준)

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3) **한우 정상회담**(7.16) 후속 조치로, 인프라·에너지·IT 등 다양한 재건사업 참여 방안 협의

○ **재건 계획 수립부터 프로젝트 수주까지 재건 과정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 대상 KSP¹⁾, EIPP²⁾ 사업 발굴 추진**

1) **K**nowledge **S**haring **P**rogram(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

G2G 차원의 심화된(매년 3~5건) **중장기**(5년 이내) **정책자문 프로그램** →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케냐, 헝가리, 에콰도르, 타지키스탄 사업 수행 중

▪ **KSP를 통한 사전연구·사업발굴 후 EIPP를 통한 프로젝트 기획 및 구체화** 등 패키지화하여 단계적 접근 추진

[사우디, UAE 등 중동지역]

- 향후 원팀코리아 사우디 추가 파견을 통해, 네옴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가칭)한-사 인프라위원회’ 추진 등 고위급 교류 확대

* 사우디의 최고위급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고위급 교류 지속 추진을 통한 우호적 진출환경 조성 필요 → 네옴 서울 전시회 既 개최('23.7.24-8.3)

▶ (그간의 성과) 정상외교('22.11), 원팀코리아 3차례 파견('22.11, '23.1, '23.6)을 통해 우리기업이 6.5조원 규모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23.6)

※ 동 사업은 우리기업의 사우디 진출 이래 최대 규모 수주실적

- 고유가를 기반으로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건설·플랜트 사업의 발주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동지역 해외수주 지원 강화

→ 고위급 교류 등 G2G 협력 강화 및 기본여신약정(F/A)¹⁾ 체결 대상국 확대²⁾ 등을 통해 적시 자금조달 지원

1) Framework Agreement(기본여신약정) : 주요 발주처와 지원한도, 절차 등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하여, 우리기업의 수요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에 금융지원

2) (既추진)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22.1월, 50억불),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ARAMCO)('23.3월, 60억불) → (확대) 他 중동국가 추가 확대 추진

[주요 자금조달 지원 사례]

① UAE 슈웨이hat 4단계 해수담수화 사업 개요

- ▶ (사업비) 7.3억불 ▶ (사업기간) '23~'26(건설 2.5년) + 운영관리 30년
- ▶ (내용) 70MIGD(약 105만명이 하루에 사용 가능) 규모의 담수 플랜트 건설·운영

②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개요

- ▶ (사업비) 50.7억불 ▶ (사업기간) '23~'27(건설)
- ▶ (내용) 연 165만톤의 에틸렌 생산시설(패키지1) 및 동력·간접시설(패키지4) 건설

[파라과이]

- 우리 철도 역사상 최초로 패키지(건설+운영) 진출사례가 될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6억불 규모)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지원 강화

* 파 대통령 취임(8.15) 경축특사 계기,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우리기업 참여 지원 협의

- GICC에 파라과이 공공사업부 장관 초청 등 고위급 교류 확대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사업 참여 법적기반* 마련 지원

* 최소수익 보장 조항, 파라과이 공공사업부와 KIND간 실시협약 체결 등

□ 현지 지원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전략적 자금 지원 추진

○ 국내기업의 해외수주 밀착지원을 위해 핵심 수주대상 국가 내 현지 지원센터 구축 확대

▪ 사우디 등 신전략시장에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운영

▶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정보수집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해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現 인니, 베트남, 케냐, 방글라데시 4개소 운영 중)

- 사우디 건설·투자개발 관련 법령 번역·해석, 건설시장 환경 조사·분석 등 심층정보 제공 지속('23.4월~)

▪ 원전·방산·플랜트 등 수주프로젝트 발굴 기능 강화를 위해 KOTRA 해외무역관 중 거점무역관 대폭 확대

▶ (원전) 거점무역관 확대(10→16개소) ▶ (방산) 선도무역관 확대(20→31개소),
▶ (플랜트) 플랜트 수주지원센터(7→11개소)

○ 고위험·저신용국, 대규모 자금 소요 산업분야에 전략적 자금지원

▪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정부 1,000억, 수은 1,500억) 추가 조성하여 고위험·저신용국*(국가신용도 B+ 이하) 수주사업 지원 확대

* 당장의 신용도는 낮지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아프리카·중남미 등 시장 중점 지원

현장의 목소리

해외건설협회 :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초고위험국 대상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이 소진되어 추가 마련 필요

▪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투자 개발사업 금융지원을 위해 글로벌 PIS*펀드 11조원 추가 조성('24~'27년)

*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FRA) 자본금 확충(5천억→2조원)을 통해 해외 주요 프로젝트 지분참여 활성화

▪ 플랜트·인프라·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무보)은 '24년 20조원으로 확대('23년 17.8조원)

3. 수출 인프라 보강

- ◇ 무역금융·마케팅·수출바우처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통관·물류 규제개선 등 수요자(수출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추진

1

무역금융

□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4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 수출기업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4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 ①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6조원 (364.7조원 중 206.1조원 既공급) 및 ②신수출판로개척 지원 등에 17.4조원 수출금융 공급

[주요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 同 지원규모는 소진시까지 적용

- ▶ (반도체 등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11조원) 설비투자·R&D 등 광범위 지원
- ▶ (신규수출국 진출 지원: 3.3조원) 수출다변화 기업 대상 신·기보 특례보증 등
- ▶ (해외수주 금융지원: 0.3조원) 해외 프로젝트 협력업체 특례보증(신보)

※ 그 외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1조원), 공급망 대응펀드(0.5조원), 전략품목 수출기업(1.3조원)

- 이와 함께,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⑥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4조원 신설·공급
-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하여 수출기업 비용부담 경감
- 또한, 완전 보증 상품, 만기 자동연장 상품을 공급하고, 수출 준비중인 기업 또는 리쇼어링 기업까지 우대대상을 확대

연장의 목소리

수출기업 : ①공급망 문제, 무역규제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에 대한 지원 필요,
②고금리 지속으로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 전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
③반도체·이차전지 등 수출전략 산업에 대한 폭넓은 추가지원 필요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및 신규 기업 참여 경로 확대

- 업종별 컨소시엄 또는 개별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수·지원규모 확대*

* (기업수) 5,478→5,646개社, (기업당) '23년 12.6→'24년 15.1백만원(+19.8%)

- 수출실적 없이도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신기술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해외전시회 발굴·지원 현장
애로

* 예 : 해외전시회 참여 대상에 신기술 창업기업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

현장의
목소리

무역협회 : 정부 해외전시회 참여지원사업의 경우 수출실적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어 전통 소비재·제조업 분야에 비해 신기술 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

- 해외전시회 설치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전시회 퀄리티 제고를 위해 설치업체가 받는 선금금 지급률* 상향조정 현장
애로

* (現) 계약금액의 30~50% 지급 → (改) 40~60% 지급 (+10%p 상향)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 갑작스런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중소 해외전시회 설치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설치업체가 받는 선금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할 필요

□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채널 확대 + 마케팅 방식 다양화

-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으로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바이어 매칭 등 수출성과 창출 지원

* 시장조사(무역관)를 토대로 유망국 풀 마련 후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사절단 규모 확정

-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¹⁾ 대상인 K-콘텐츠 범위에 포함²⁾

1) 식품, 소비재 등과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간접광고·홍보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2) (現) 드라마, 예능만 지원 → (改)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지원

- 수출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마케팅·판촉·전시회** 등 참여 지원

* 전문무역상사 해외 유통망(GS글로벌, 롯데마트 등)을 활용한 해외 동반 판촉전, 전문무역상사 전용 글로벌 상담회 참여 지원 등

□ 수출바우처 규모 확대 + 수요자(수출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

-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4년 지원규모¹⁾를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항목(메뉴판)을 추가 확대²⁾ 현장으로

1) (지원규모) '23년 1,441억원(3,473개社) → '24년 1,679억원(3,984개社)

2) (現) 디자인 개발, 홍보, 전시회, 인증 등 14개 분야

(추가) ①수출에 필요한 유해물질 검사, ②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

연장의 목소리

무역협회·수출기업 등 : ①해외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바이어의 A/S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사무실이 없는 중소기업이 A/S를 직접 대응하기 어려움 + ②A기업은 유해물질 규제 대응 등을 위해 연간 1.5억원의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현행 수 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유해물질 검사 지원항목 제외

- 수요자(수출기업) 중심으로 수출바우처 제도 사용편의 개선
 - 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산업부)의 신청 시기를 年 1회 → 2회로 분산하여 적시지원 유도 현장으로

연장의 목소리

수출기업 건의사항 (원스톱수출119) : 수출바우처 신청 정보를 조기 취득하지 못한 기업이나 신청시기 도과 이후 수출환경에 변화를 겪은 기업은 신청이 어려움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지정방식을 개편*하여, 수출기업들의 실제 선호를 반영한 수출바우처 사용을 유도 현장으로

* 수출기업이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를 사후적으로 수행기관으로 인정하는 사후정산 방식 추가 확대(무역보험보증, 서류대행현지등록 등) + 부정사용 관리 강화

연장의 목소리

수출기업 등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수행업체 선정에 한계

4

해외인증

□ 정부간 협력을 통한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 확대

- **의약품 자동승인¹⁾** 등 신속 시장진입 위한 국가간 규제협력²⁾ 추진 **현장 애로**

1)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상대 국가에 허가신청 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허가 획득 가능 / 2) (現) 에콰도르 → (改) 남미국가 등 추가 검토

현장의 목소리

제약·바이오협회 : 에콰도르 外 다른 남미국가에 대해 자동승인제도 및 신속 심사 제도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 추진 요청

- **의약품 수출시 국내 허가자료를 활용해 수출국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 확대*** 등 추진 **현장 애로**

* (예) 한-싱가포르 국내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평가결과 상호인정 협정 체결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

제약·바이오협회 :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상호인정협정 체결국을 유럽·브라질 등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까지 확대

□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현장 애로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

- **(애로해소)**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해소 지원

- 해외인증 현장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중(코트라, 중진공, 시험인증기관 등 12개 기관), 산단공 입주업체의 애로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산단공-국표원 협약 체결(8.31.)

- **(밀착지원)** 해외인증 준비, 진행 중인 기업의 수출을 위해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신청부터 획득까지 전주기 밀착 지원

-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심사결과 기술자문 등 지속 관리

* (정보) 수출품목 인증정보 제공 → (신청) 신청서류절차 지원 → (심사) 심사결과 자문

- **(역량강화)**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 강화를 위해 품목별·국가별 해외인증을 교육하고, 전문가 양성 및 가이드북 보급

* '23년 화장품, 전기차충전기 등 20품목 가이드북을 제작, 전문교육에 활용

□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한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추진

- 규제자유특구¹⁾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고도화²⁾**하여 **해외 실증부터 인증·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1)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해 일정 조건 下 규제를 유예·면제(19년~)
- 2) 기존 규제 자유특구 중심으로 2개소 시범지정(23.10월), 해외 실증거점(美·佛·日) 지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역특구법」 개정 추진(~24.上)

실증 특례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실증	지자체, 해외 실증 거점(美·佛·日)에서 실증 지원
인증	UL(美), CE(BV(佛), TÜV(獨)) 등 해외 인증기관이 설계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직접 컨설팅

5 통관 · 물류

□ 보세제도 활용성을 넓히고, 물류지원 인프라 확충

- 첨단산업 수출에 기여하는 **보세공장·창고 제도** 활용 확대

[보세공장의 의미]

- ▶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 없이 수출 가능
→ 외국 원재료 활용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 중심 활용**(162개 운영 중)

- ▶ 주요 첨단분야 수출의 약 90%¹⁾,
'22년 전체 수출액 중 23%²⁾가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

1)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 비중('22) :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2) '22년 전체 수출액 6,838억불의 약 23%가 보세공장 수출(1,571억불)

-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 적용(10월~)

중소기업 보세공장 설립 허가 기준 개선안(10월 시행)

	현 행	개 선
시설 기준	▶ 창고 출입문 너비·높이, 차양의 너비·높이 등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화물의 손상방지 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점 부여
관리 기준	▶ 화물관리 전담부서 구성 여부, 보세사 채용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화물관리 전담부서 구성 항목 폐지, 보세사 1인 이상 채용 시 만점 부여
자가 여부	▶ 토지, 건물, 장비 등의 자기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중소기업은 임차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미감점

- 중계무역·환적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을 위해 보세창고의 특허요건 및 보관기한 등 규제를 완화·시행(10월~) 현장
예로

보세창고 규제 개선안(10월 시행)

	현행	개선
특허요건	▶ 해당지역 물동량 기준* 적용 * 최근 1년 반입물량이 최근 3년 평균 90% 이상 ▶ 출입문차양막 크기 도크 자상층 규제적용	▶ 산업단지*는 물동량 기준 미적용 *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에 한함 ▶ 해당규제 폐지
보관규제	▶ 기한: 최대 1년(6개월+6개월 범위 연장) ▶ 내국물품 보관 시 사전신고	▶ 중계무역 물품은 보관기한 미적용 ▶ 대장기록 등 자율관리
작업범위	▶ 운송도중 파손·변질로 보수 ▶ 통관목적 개장분할구분합병원산지표시 등 ▶ 중계무역 수출·보세판매장 공급목적 제품검사·선별·기능보완등	▶ 보존작업·선별·용기변경·포장·상표부착·단순조립·검품·수선 등의 활동* * 품목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현장의
목소리 **물류업체** : 보세창고는 지역의 물동량 기준과 시설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보관기간 및 작업범위 등이 제한되어 있어 중계무역·환적 등 물류 유치에 한계

- 안정적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인천 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 준공(11월), 부산항 신항 신규 터미널 준공(12월)* 등 **항만 인프라 적기 확충**으로 글로벌 물류 경쟁력 확보
 - * 신항 서컨 부두 : (접안능력) 5만톤급 3선석 (연간 하역능력) 195만TEU, (선석 길이) 1,050m
-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 확대***를 위해 **터미널운영社-수출화주 간 협의 지원**(‘23.9월~) 현장
예로
- * (現) 3~4일 → (改)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 화주 대상으로 5일로 확대** 검토

현장의
목소리 **무협·경총**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 사전반입 가능 기간이 축소되어 외부 야적장 보관료, 상·하차료 등 물류비 부담 증가

□ 수출입 기업의 우수업체 인증, 과세환급 절차·제출서류 등 간소화

- **중소 수출기업**은 통관상 혜택이 제공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시 **심사서류 100종 이상 축소**(500→350여종) 현장
예로
-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 후 신속통관, 검사생략 등 혜택 제공

현장의
목소리 **중소·중견 수출기업** : 통관에 큰 도움이 되는 AEO 공인 취득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서 AEO 제도 활용이 곤란

-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통관상 혜택(신속통관·검사축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우디와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23.9월) 현장
애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해 통관상 혜택을 상호제공기로 한 약정으로 주요 교역국인 미·중·일 등 총 22개국(수출비중 70.1%)과 기체결

현장의
목소리 **수출기업** : 수출통관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중동지역(사우디)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 * 기업설문 결과 중동지역 최우선 MRA 체결 희망

-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출 서류 축소, 업무전산화 등을 통한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23.9월) 현장
애로

* ①은행 통폐합 등에 따른 환급계좌 변경 시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생략,
②환급신청 증빙서류 제출방법 변경(종이서류→전자제출),
③성실업체(AEO) 환급서류 전산 자동발급 등

현장의
목소리 **수출기업** : 매해 관세환급을 위해 다수의 문서를 별도로 작성에 필요해 별도 인력 배정 등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 국내 사용 없이 해외 재수출 목적으로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시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 통관 지원('23.下) 현장
애로

*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전파간섭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기자재 제조·판매·수입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현장의
목소리 **대한상의·경총** :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시 동일 물품을 해외 재수출 목적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 간별로 「전파법」 상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해 수입통관 소요시간 증대

-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을 간소화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인도와 신규 개통(‘23.10)

*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시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불요
→ 절차 간소화, 물류비용 절감,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관련 통관애로 예방

□ 외국인력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로 도입 확대

- 금년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확대(E-9 +1만명, E-7-4 +3만명)하고, 현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24년 쿼터 지속 확대** 추진

* (E-9) 기본 쿼터 11→12만명, 업황 변동에 따른 탄력 쿼터 1→2만명+α로 확대

- 비전문외국인력(E-9)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한 **허용업종 지속 확대** 추진

*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등 플랜트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외국인 비전문취업(E-9) 허용 방안 검토(~12월, 고용부·국토부·산업부 공동 **현장예**)

* (산업부) 플랜트 현장의 기술유출 등 보안 유지 가능성,
(국토부) 현장 외국인력 수요 파악 등 선결 검토

현장의 목소리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격오지 근무와 높은 위험도 등으로 인해 신규인력 유입이 부족한 상황이나,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건설업의 외국인력 고용 제한

- 체류기간 제한 없는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요건 간소화***, 기업체 추천시 가점 부여 통해 숙련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

* 전환시 심사 요건을 평균소득, 연령,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순화하고, 부처·지자체·기업체 추천,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 등에 가점 부여

4. 현장애로 해소

◇ **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 등 애로 발굴 체계 강화 +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애로 즉시 개선**

□ **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월2회), 기업방문 컨설팅 신설(9월~)**

- **(원스톱 수출 119 운영)** 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팀이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월 2회)**
 - 1) (국가산단) 수도권(6월, 반월·시화) → 충청·강원권(7월, 오송) → 경상권(9월, 구미) → 전라권(10월, 광주) 등
 - 2) (지방산단) 보령(5월)→충주(6월)→나주(7월)→옥천(8월)→인천(9월)→안동(10월) 등
 - **유망 수출기업* 현장 방문 프로그램인 「수출 119 기업방문 컨설팅」** 신설하여,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9월~)
 - * 중기부 지정 유망 수출기업 대상, 지원단·유관기관 합동으로 찾아가는 1:1 수출 상담
 - **수출기업 대상 주요 수출애로(인증, 금융, 바이어 발굴 등) 관련 「수출지원 정책 설명회」** 개최(9월~)
 - **(컨벤션 연계 애로 해소)** 대규모 전시회 등과 연계한 수출 상담회*, 수출기업 간담회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 청취·해소 활동 지속
 - 컨벤션 참가 해외바이어와 비즈니스 미팅 통한 판로개척도 지원
- * (8.30~9.1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연계 핀테크 수출기업 상담회
(9.14~15일) '국제병원-의료기기 박람회' 연계 의료기기 수출기업 상담회
(9.21~23일)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연계 에듀테크 수출기업 상담회
(10.18~19일) '붐업코리아' 연계 수출기업 상담회 등
- **(신산업·서비스 수출지원)** 수출 유망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 협업체계를 구축, 분야별 수출기업 간담회 및 1:1 상담 추진
 - 1) (8월) 수소, 드론, (9월) 로봇, 전기차 등 신산업분야 스타트업, 협단체 간담회
 - 2) (9월) 관광, (10월) 게임, (11월) 헬스케어, (12월) ICT 등 수출기업 간담회

- (수주 지원) 원활한 수주 환경 조성 위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수출·수주 관련 건의사항 수렴 및 외교적 지원 필요한 국가 대상 주한 대사관 협의 진행
 - 1」 볼리비아(5월) → 우즈베키스탄·베트남(6월) → 방글라데시(7월) → 파나마·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온두라스 등 중미 FTA 5개국(8월) → 과테말라(9월) 등
 - 2」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중미 5개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추진('23말)

□ 해외 영업지원, 수출기업 우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 정비

- (해외영업 지원) 위험국가(이라크 등) 방문시 요구되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 해당 위험국가 방문 중 숙박 장소 등 경미한 일정변경인 경우 신속 승인(1개월→7일내) 조치

현장의 목소리

수주기업 : 수주를 위해 위험국가(이라크 등) 방문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필요
→ 경미한 일정 변경인 경우 신속한 승인 건의

- (조달 인센티브)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수출실적에 따른 평가 배점 차등화를 통해 수출 우수기업 우대

* (現) 수출실적(3년 내 10만 달러 이상),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A·B등급 기업 단일 가점 → (改) 수출실적, G-Pass 등급에 따라 가점 차등화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 조달청 수출 우수기업 평가 시 간접 수출실적을 반영하고,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 추가 우대 건의

Ⅲ.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1. 수출 품목 다변화

①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시기
•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 금융·보조금 지원 강화	산업부	'24년
• 용인반도체 국가 산단 조기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기재·산업·국토	'23.10월~
• 반도체 특성화대학 확대('23년 8개→'24년 18개)	교육부	'24년
• 반도체 단기 교육과정(부트캠프) 확대('23년 10개→'24년 27개 내외)	교육부	'24년
• 3,000억원 규모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	산업부	'23. 下
•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	교육부	'24년
•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포항)	산업부	'24년
• 2,000억원 규모 차세대전지 R&D 신속 예타 추진	산업부	'23. 下
• 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등 개발을 위한 신규 R&D 추진	산업부	'24년
• 소부장기업들의 실증을 위한 배터리 파크 구축	산업부	계속
• 글로벌 바이오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신규 구축	복지부	'24년
•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산업부	계속
• 주요국 무역관 內 K-바이오데스크 7개소 설치	산업부	'24년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과기·복지·산업부	'24년
• 해외 현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미국·영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복지부	'24년
• 바이오헬스 릴레이 수출설명회 개최(미국, UAE, 인도네시아)	복지부	'23.9~11월
• 해외 바이어 초청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 개최	산업부	'23.9월
• EU CPHI 한국관 운영	산업부	'23.10월
• 의약품 관련 국제기구 입찰정보 신속제공 및 신청서 작성 지원	복지부	계속
•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구축(천안)	산업부	'24년
• 미래차용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	산업부	계속
•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신설	산업부	'24년
• 디스플레이 산학연계 인력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 4개교 설치	교육부	'24년
•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을 위한 차량 신속운행 지원	국토부	'23. 下~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설명회 개최 및 이행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산업부	'23.9월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한-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	산업부	'23.9월
•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사업추진	산업부	계속
• 철자원 산업육성 전략 마련	산업부	'23.4Q
• 무보 RG 특례보증 신규 2,000억원 공급	산업부	'24년
• 단순노무인력(E-9) 조선업 별도 쿼터 확대 검토	고용부	'24년
• 조선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공제사업 적용 범위 확대	고용부	'24년
•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 신규 설립	산업부	'24년
• 친환경 선박 인증 신청 주체 확대(조선사 추가) * 친환경선박 인증 규칙 개정	해수부	'23. 下
•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 MOU 체결	산업부	'23.9월
• 자동차 수출 컨테이너 위험물 검사 수수료 할인 확대	해수부	'23. 下
• 석유화학 민관합동 비상대응 협의체 출범	산업부	'23.9월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환경부	'23. 下
• 민관합동 건설기계 수출사절단 구성, 중동국가 파견	산업부	'23. 下
• 전략물자 포괄허가 절차·심사 개선(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산업부	'23. 下

2 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시기
• 디지털 新제품·서비스에 대한 ICT 융합품질 인증 확대	과기정통부	'24년
•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선정 시 ICT 융합품질 인증 제품에 가점 부여	산업·중기·과기	'24년
• 브랜드K 상표 부여대상에 ICT/SW 서비스 추가	중기부	'24년
• 디지털플랫폼 입점 지원을 중동·인도 등 신시장까지 확대	중기부	'24년
• SW 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입점 지원	과기정통부	'24년
•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디지털 분야 신규선발·글로벌 진출 지원	중기부 등	'24년
• 미국·중동에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과기정통부	'23.9~10월
• 전략물자관리원 내 SW 분야 판정 인력 보강	산업부	'24년
•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대응 가이드 등 제공	과기정통부	'24년
• 서비스형 SW(SaaS)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24년
• 국내 화장품 홍보관 확대 운영	복지·문체부	'23.4Q~
• 국내 화장품 해외 판매장 확대 운영	복지부	'24년
• 1조원 규모 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문체·과기정통부	'24년~
• 대형 콘텐츠 제작지원용 신기술 인프라 구축	문체·과기정통부	'24년~
• K-팝 음원 국내·국제표준코드 동시 발급 추진	문체부	'23.下
• 1인 창작자도 웹툰 해외 컨퍼런스·마켓 참여 등 지원대상에 포함	문체부	'23.下
• 제3차 한-사우디 서틀경제협력단 파견(스마트팜, 식품, 건설·플랜트)	농식품·산업부	'23.9월
•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농식품부	계속
•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및 메뉴판 다양화	농식품부	'24년
• 수출 쏠단계(산지~해외 소비자) 농식품 수출 특화 물류체계 구축	농식품부	계속
• 농식품 해외 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지원	농식품부	'24년
• 딸기 등 신선품목에 대해 물류비 지원비율 확대(최대 15%→25%)	농식품부	'23.8~12월
•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확대 및 지자체 연계 강화	농식품부	'23.9월
• 주요 K-Food 품목에 대해 K-콘텐츠 연계 간접광고 등 지원	농식품·해수·문체	계속
• 日·中·美·아세안 현지 유통시장 연계 인기 농식품 집중 판촉	농식품부	~'23.11월
•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대상 수출박람회·국제박람회 참가지원	농식품·해수부	'23.下
• 주요시장 K-Food Fair 개최	농식품·해수부	'23.下
• 우리 주류의 해외 모방품 방지 지원(협의체 구성, 대응전략 마련 등)	특허청	'23.下
• 전력공기업이 해외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 활용시 경영평가 가점 부여	기재부	'23.下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신규 조성	산업부	'24~
• 수소 전문기업 지정기준 개정 * 수소경제법 시행령 개정	산업부	'24년
• 체코·폴란드 등 대상 맞춤형 세일즈 활동 전개	산업부	계속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운영	산업부	계속
•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사업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추진	환경부	계속
• 주요 수주일정별(베트남, UAE 등) 장차관 세일즈 외교 추진	환경·산업부	'23.10~11월
• 개도국 등의 환경난제에 대한 현지진단팀 구성·파견(인나·콜롬비아 등)	환경부	'23.10~11월
• 美 실리콘밸리 시장개척단 파견	환경부	'23.12월
• 녹색채권 이자 지원('23년 3조원)	환경부	'23~(한시적)
• 녹색산업 융자 대상에 녹색산업 수출기업 추가	환경부	'23.3Q~
• 해외 녹색산업 프로젝트 대상 이차보전사업에 수은도 신규 참여	환경·기재부	'23.下

2. 수출 지역 다변화

① 주력시장 (미국 · 중국 · 아세안)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추진시기
•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개최	기재부	‘23.下
• 인프라(CT, 에너지, 항만, 공항, 교통), 탄소 중립 등 분야 공동자원 사업 발굴	기재부	‘23.下
•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단축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기재부	‘23.下
• 국내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 조성	중기부	‘24년
• 해외현지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 지원(‘24년 신규 10건)	과기정통부	‘24년
• 해외 물류센터 추가 확보 추진(베트남 호치민, 미국 LA)	해수부	‘23.下
• 시스템반도체 거점지역 협력센터 신설(미국, 중국)	산업부	‘24년
•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신설(미국, 일본)	문체부	‘24년

② 新전략시장 (중동 · 중남미 · EU 등)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추진시기
• 우크라 재건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한-폴 차관급 협의체 운영	국토부	‘23.9월~
• 한-우크라 화상협의 지속 개최	국토부	계속
• GICC 우크라이나 재건 특별세션 운영	국토부	‘23.9월
• 우크라이나 대상 KSP, EIPP 사업 발굴	기재부	‘23.下
• 원팀코리아 사우디 추가 파견	국토부	미정
• 대규모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가칭)한-사 인프라위원회’ 추진	국토부	미정
• 기본여신약정(F/A) 체결 대상국 확대	기재부	‘23.下
• GICC에 파라과이 공공사업부 장관 초청	국토부	‘23.下
• 사우디 등 신전략시장에 현지 지원센터 신설·운영	국토부	‘23.下
• KOTRA 해외무역관 중 거점무역관 확대 * 원전, 방산, 플랜트	산업부	‘24년
•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조성	기재부	‘24년
• 글로벌 PIS펀드 1.1조원 추가 조성	국토부	‘24년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자본금 확충(5천억→2조원)	국토부	‘24년
•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무보) 확대(20조원)	산업부	‘24년

3. 수출 인프라 보강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181.4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수·지원규모 확대 해외전시회 설치업체가 받는 선급금 지급률 상향조정 * 코트라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개정 신기술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해외전시회 발굴·지원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 범위 확대(뮤직비디오 등)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마케팅·판촉·전시회 등 참여 지원 수출바우처 규모 확대 및 지원항목 확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시기를 年 1회 → 2회로 분산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지정방식을 개편 의약품 자동승인 등 신속 시장진입 위한 국가간 규제협력 의약품 상호인정협정 체결국 확대 품목별·국가별 해외인증을 교육하고, 전문가 양성 및 가이드북 보급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고도화 보세공장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 적용 보세창고의 특허요건 및 보관기한 등 규제를 완화·시행 인천 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 준공 부산항 신항 2-5단계 터미널 준공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 확대 협의지원 우수업체(AEO) 인증시 심사서류 축소 사우디와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 해외 재수출 목적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시 신속 통관 지원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인도와 신규 개통 금년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확대(E-9 +1만명, E-7-4 +3만명) 외국인력(E-9) '24년 쿼터 지속 확대 추진 플랜트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외국인 비전문취업(E-9) 허용 방안 검토 체류기간 제한 없는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요건 간소화 등 	기재·산업·중기 금융위 산업부 산업부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산업부 산업·중기부 산업부 산업·중기부 식약처 식약처 산업부 중기부 관세청 관세청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과기정통부 관세청 고용부 고용부 고용·국토·산업 법무부	'23.下 '24년 '23.下 '23.下 '23.下 '23.下 계속 '24년 '24년 '24년 '23.下 '23.下 계속 '24년 '23.10월 '23.10월 '23.11월 '23.12월 '23.下 '23.下 '23.9월 '23.9월 '23.下 '23.10 계속 '24년 '23.12월 '24년

4. 현장애로 해소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 유망 수출기업을 방문하는 수출 119 기업방문 컨설팅 신설 주요 수출애로 관련 수출지원 정책 설명회 개최 컨벤션 참가 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미팅 통한 판로개척 지원 수출 유망 신산업·서비스 분야별 수출기업 간담회 및 1:1 상담 추진 수출·수주 관련 외교 지원 필요한 국가 대상 주한 대사관 협의 진행 수출 판로 확대 위한 중미 5개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위험국가 방문시 요구되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수출 우수기업 우대 	기재·산업부 기재·산업부 기재·산업부 기재·산업부 기재·산업부 등 기재·산업부 등 기재·산업부 등 외교부 기재부·조달청	계속 '23.9월 '23.9월 '23.下 '23.下 계속 '23.下 '23.8~ '23.下